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March 7, 2019 Vol. 662



남가주목사회가 교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3.1운동 100주년 기념 연합예배를 드리고 그 정신과 의미를 되새겼다.

남가주목사회 주최 3.1운동 100주년 기념 연합예배 드려

"독립자금 공급처 역할 한 리들리에서 그들의 정신 계승할 것"

3.1절 100주년을 맞아, 남가주목사회가 교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3월 3일 주일 오후 4시 남가주새누리교회 새성전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는 미주3.1여성동지회, 남가주한인목사회, OC교협, OC한인목사회, 남가주교협, 대한민국육군남가주지회, 성시화운동본부, 남가주장로협의회, 남가주목사장로부부찬양단, 대한인국민회,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샘신 목사(남가주 한인목사회 직전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념예배에서 이호우 목사(OC교협 직전회장)가 대표기도하고 김근수 목사(OC한인목사회 회장)가 성경을 봉독했다. 목사장로부부합창단의 특별찬양에 이어 피종진 목사(남서울 중앙교회)가 설교하고 한기형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진행된 2부 기념식은 박세헌 목사(남가주 한인목사회 부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국기입장,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삼일절 노래에 이어 송영일 목사(남가주 한인목사회 부회장)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김관진 목사(남가주 한인목사회 회장)가 대회사를 낭독하고, 권영신 장로(대한인국민회 이사장)가 기념사를, 송정명 목사(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축사를 전했다. 김영균 장로(남가주장로협의회 회장)가 격려사를 전했고 만세 삼창으로 마무리했다.

김관진 목사는 대회사에서 "독립 지사들과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중가주 리들리를 방문해 밤낮으로 일하며 독립자금을 모아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며 독립자금의 중요한 공급처 역할을 수행하다 쓸쓸히 숨져간 역사의 현장에서 3.1 독립만세를 재현하며 민족의 긍지를 되살리려 한다."고 밝혔다. 송정명 목사는 "보수, 진보로 분열되어 있는 오늘날 교계에 던져주는 깊은 메시지가 있다. 선조들의 단합된 마음을 가슴에 다시 새기는 마음으로 3.1절 기념예배에 동참해야 하며 동시에 통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한다. 북녘에 있는 동족들에게도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찾아오길 기도해야 한다."며 "이것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태광 목사(남가주 한인목사회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3부 감사와 축하 순서에서는 김관진 목사(대회장)가 피종진 목사와 권영신 이사장에서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저녁식사 교제를 마무리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4일 오전에는 교계 관계자들이 중가주 리들리를 방문하여 기념식을 가졌다.

〈기독일보 창간 15주년 축사〉

기독언론의 선교적, 예언자적 사명



박희민 목사
본지 편집고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하였는데 지난 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단없이 기독언론지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올뿐 아니라 장족의 발전을 해온 기독일보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진심으로 경의와 축하를 드립니다. 특별히 금세기 10년은 과거 1세기에 가늠할 만큼 급변하는 시대인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언론이 끼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흔히 제4의 정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언론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언론이 여론을 조성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사회와 정치를 이끌어 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기독언론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15년 동안 기독일보는 다른 여러 기독언론지들보다 편집도 말끔하고 내용도 알차다는 평가를 받으며 성장 발전해 온 것을 축하합니다.

특별히 기독언론지로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와 뉴스를 전달해주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보가 돈보다 더 귀한 세상입니다. 누가 먼저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느냐에 따라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사업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기독일보는 무엇보다 지난 15년간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전파하며 증거하는 문서선교의 사명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날뿐 아니라 지난 2천 년간 여러 이단과 사이비들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려는 유혹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려는 노력과 사명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해온 것을 치하드립니다.

기독언론지의 사명은 선교적 사명과 함께 급변하는 시대, 특별히 탈기독교 또는 반기독교 문화로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변호할 뿐 아니라 예언자적 사명을 다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기독일보는 바로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다방면으로 힘써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포사회와 교계에 바른 가치관과 비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전도돼 있다는 점입니다. 기독 언론의 사명 중에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은 우리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사역하며 성도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영성이 풍성한 경건생활에 힘쓰도록 인도하는 지팡이 또는 나침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고 봅니다.

또한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교계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도 많이 힘쓰고 노력하였다고 봅니다.

교계의 일치와 연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약점의 하나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2면에 이어서]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스팩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한인 매니저) T.(562)916-5191 Sang.park@charter.com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주일예배 : 오전 6:00 /11:00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수요예배 : 오후 5:30
금요예배 : 오후 5:30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기독일보 창간 1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선교적 신학교로서 열방을 섬길 인재를 양성합니다."
학위 과정
B.Th. (신학 학사) Korean Track / English Track
M.Div. (교역학 석사)
M.Div. with a concentration in Church Music (교회음악 중점 교역학 석사)
MACCP (크리스천상담심리 석사)
MAICS (선교학 석사)
Ph.D. in Contextual Studies (선교학 철학박사)
※ 학사와 모든 석사 과정은 100% 원격교육으로 오프라인 과정과 동일하게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학위 과정
교수 - 학생 밀착형 ESL 과정
평신도대학
연관 기관
산타페상담소 (소장 : 김용환 박사)
기독교 - 이슬람 연구소 (소장 : 김일권 박사)
본교 비전과 특징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www.ptsa.edu
전 세계 22개 노회, 460여 교회로 구성된 미주 최대 한인교단,
해외한인장로회 (KPCA) 직영신학교
- 졸업 후, 전 세계에 흩어진 사역지((교회, 선교지) 연결망 (북미, 중남미, 뉴질랜드, 호주, 유럽, 일본 등)
선교적 영성과 목회로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 양성에 주력하는 신학교
성서대학교협의회 (ABHE), 북미신학대학원협의회(ATS) 정회원 학교
I - 20 양식 발행 : ESL, B.Th., M.Div., MACCP 과정
90% 이상 유수한 신학교에서 Ph.D. 학위 취득한 교수진
효율적 플랫폼과 양질의 신학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 (전 세계 16개국에서 수업)
12개 종류의 각종 장학금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B.Th. 학생들에게 연방정부 교육국의 무상 학자금 제공
자격 요건을 갖춘 재향군인들 (Veterans)에게 장학금과 생활비 등의 혜택 제공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 장 이상명 박사
이사장 유영기 목사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 Fax. (562) 926-1025 / office@ptsa.edu

기독일보 창간 15주년 축사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서치라이트가 되어 주소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이상명 총장**

기독일보는 2004년 1월에 창간되어 이제껏 한인 이민교회와 사회에 '말길'과 '글길'을 열어주어 교회와 교회, 교회와 세상 사이를 잇는 대표적 언론으로 성장했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속한 변화와 발전에 현기증이 일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21세기를 지식정보사회라고 부르지만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지 불과 십수 년 만에 우리 사회는 이미 스마트 시대에 들어서고 지능정보화로 특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가히 '속도의 혁명'이라 부를 만큼 변화와 혁신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이 변화는 선형적 속도가 아닌 기하급수적 속도로 전개 중입니다. 지능정보사회는 연결과 지능을 기반으로 합니다. 정보에 지능이 결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미래사회를 예고합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과 사물이 함께 지능을 가지고 주도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초연결, 초지능으로 특징짓는 미래사회에서 엄청난 변화의 속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만들 미래사회 속 기독교 언론의 운명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기독교 언론의 낙후성을 감안하면 위기에 처해 있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위기'란 단어는 '위험'과 함께 '기회'란 의미도 내포합니다.

21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입니다. 기독교적 가치와 전통과 문화가 세속화의 거센 도전 앞에 조롱받으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파를 타고서 곳곳으로 방출되는 저속한 메시지와 감각적 영상에 세상은 현혹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복음적 가치와 기독교적 문화를 쇄신하고 창출할 수 있는 매체로써 기독교 언론의 역할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적 가치와 문화가 도전받고 있는 현시대에 시공간을 뛰어넘고 사회 문화적 제약에 묶이지 않으며 여러 세대와 인종과 민족을 대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언론매체로서의 기독일보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큽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기대만이 아닌 기독일보를 지켜보는 한인 교회와 사회의 바람일 것입니다.

기독교 언론을 생각할 때 화란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열 개의 머리와 백 개의 손을 가진 자"라는 칭송을 받았던 그는 다방면에 천부적 재능을 지녔던 인물로 종교개혁자 장 칼뱅의 신학을 세계화시키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는 인본주의적, 무신론적인 국립대학에 대항하여 성경적, 신본주의적인 칼뱅 사상에 기초한 화란 자유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는 일간지인 '스탠다드(Standaard)' 지를 창간해 편집인이 되었고, 주간지 '헤라우트(Heraut)' 지를 창간해 45년간 편집장으로 일했습니다. 이 신문들 모두 분명한 기독교적 관점, 그것도 철저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화란 교회의 문제는 물론 화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전 영역의 이슈를 다룬 것으로 유명합니다.

무신론적 세속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 개혁주의 전통에 근거한 카이퍼의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언론은 카이퍼의 다음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의 총체적인 진리를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 삶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밝히 드러내는 것이다." 카이퍼의 외침은 비단 기독교 언론만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각 사람의 정체성은 그가 무엇을 보고 듣고 경험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일상 속 그가 접하는 여러 매체를 통해 정립됩니다. 그런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주는 기관으로는 교회와 교단도 있지만 기독교 언론 방송사도 크게 한몫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평가 분석하여 그것에 근거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 기독교 언론의 주된 과제입니다. 그저 교계 뉴스를 전하는 일만 한다면 성도들을 청맹과니로 만들고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일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와 문화에 대항하여 기독일보가 복음의 내용과 능력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문화선교의 도구가 되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건전한 기독교문화를 창출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작금의 혼탁한 시대에 기독일보가 문서선교를 통해 이민교회와 사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적 가치와 선교적 비전으로 저속한 세속문화에 대항하고 성도들을 일깨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교회와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서치라이트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독일보 창간 1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기독한의사협회 한의치료 봉사

미주기독한의사협회(회장 오정국)는 나성소망교회(담임 김재율)의 초청으로 지난 3일 주일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동교회에서 한의 치료봉사를 했다.

오정국 회장을 비롯 김용훈, 정종오, 박정민, 이미란, 박수정 원장 등 6 명의 한의사가 20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기독한의사협회는 매월 2번째 주일 오후 4시부터 예배와 보수교육을 한다. 3월 10일에는 미주 평안교회에서 모이며 재임스 정 목사의 러시아선교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관계자는 "관심있는 한의사와 한의대학생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818)987-6741, (213)703-703-8541

[1면 '15주년 축사' 에 이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므로 권위가 추락하고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비웃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 되고 연합할 때 복음도 더 효율적으로 전할 뿐 아니라 정부나 사회를 향해서도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대제사장의 중보기도에서도 교회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기독일보가 차세대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해 온 것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인 이민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1세대들이 이루어놓은 신앙의 전통을 차세대들에게 잘 전수해 주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바로 이어주지 못할 때 1세대들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1세대들의 신앙전통과 사역을 후세들이 잘 이어가느냐'에 큰 관심을 두십니다.

끝으로 그동안 혼신을 다해 헌신해 온 기독일보 사장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 20주년 30주년을 향하여 더 큰 비전과 사명을 갖고 한인이민사회에서 기독교 문화창출을 위해 더욱 창의적인 노력을 하며, 한인사회를 넘어 미국 주류사회와 소수민족에게도 읽히고 영향을 주는 기독언론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터넷시대, 스마트폰시대에 발맞춰 신문이라는 매체를 지속하면서도 '5G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기독교 매체로서 생존해 성장 발전해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에서는 유튜브를 통한 인터넷방송이 공영방송보다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십만의 시청자를 자랑하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기독일보가 발전하고 더욱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교의 매체로서 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사를 갈무리합니다.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길"

성서장로교회 창립 50주년 감사예배



성서장로교회 창립 제50주년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3일 성서장로교회(김병용 목사)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 및 기념 음악회를 성대하게 드렸다.

김병용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나민주 목사(직전 당회장)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며 "1969년에 몇 분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벌써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50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힘든 이민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왔다.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한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회 창립 때부터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해 온 이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수상자는 임진수 장로, 한성수 한성모이다. 감사패 전달 후, 장광춘 목사(KEPC 총회장), 이상훈 목사(사우스베이목사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권오달 목사(미주대신증경노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쳤다.

기념 음악회는 정지윤 목사의 축시를 시작으로 엔젤찬양율동단, 남성중창단, LA남성중창단, 글로발심포니 밴드, 홍대선 홍영란 집사, 나민주 목사의 클라넷 독주와, 윤기성 목사의 내 맘의 강물 이후 '여기에 모인 우리'를 합창하며 순서를 모두 마쳤다.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기본우리교회
기독일보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기본우리교회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joyfulccc.office@gmail.com 818-662-0400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1)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JCCC Academy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EM 오전 11:1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지난 3월 1일부터 3일까지 마커스워십과 원하트미니스트리가 연합해 남가주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하나됨’,세상에 전할 기독교의 소중한 가치

마커스와 원하트 연합집회 많은 인원 몰려

‘United as ONE”이라는 주제로 마커스워십과 원하트미니스트리의 대규모 연합 집회가 3월 1일(금)부터 3일(주일)까지 열린 가운데 총 2500명에 이르는 인원이 참석해 찬양과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의 하나됨’의 의미를 되새겼다.

첫째 날, 토렌스제일장로교회에서 열린 집회에는 토랜스 지역 뿐만 아니라 엘에이 각지역 예배자들이 몰려와 550여 명이 함께 했으며 설교자로 선 다니엘 뉴먼 목사는 1세와 2세의 연합과 하나됨을 가족 이야기를 통해 풀어냈다.

둘째 날, 세리토스장로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열린 예배 세미나에는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종호 전도사, 마커스 워십팀의 모든 멤버들, 심형진 전도사, 원하트 사역자들이 예배의 이론과 실제에 관해 강의했다. 오후 6시에 열린 찬양집회에는 7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몰려 보조의자를 모두 사용하고도 예배당 바깥까지 의자를 배치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으며 미처 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길을 돌린 이들도 있었다. 둘째날 말씀을 전한 김우준 목사는 “하나님과 하나될 때 우리 안의 하나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집회 마지막 날인 3일 10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인 가운데 집회가 시작되었다. 설교를 맡은 고창현 목사는 “하나됨을 통해 크리스천의 가치를 세상에 흘려 보낼 수 있다”며 “하나됨”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원하트 미니스트리의 피터 박 목사는 “이 집회로 우리의 상황이 단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예배자들을 독려했다.

한편, 원하트미니스트리는 4월 6일(토) 더 소스몰 중앙무대에서 정규 찬양집회를 열 예정이며, 매달 이곳에서 정기 찬양예배를 드리며 세상 한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문의: (213) 347-5080



기쁜우리교회는 3.1절을 맞아 글렌데일 소녀상 앞에서 삼일절 기념식을 거행하며 독립의 의미를 되새겼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독립 정신 계승

기쁜우리교회(김경진 목사)는 삼일절 100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3월 3일 오후 12시 40분 교회 인근 글렌데일 센트럴 파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삼일절 기념식을 거행했다.

김경진 목사의 개식사로 시작된 기념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후 청년부 조우용 형제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교인들의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이날 조영창 목사는 기념사를 전하며 ”삼일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선조들의 발자취와 자세를 배우자.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사랑을 접목시켜 애국심을 더욱 바르게 전승하자. 믿음으로 이땅에서 조국애로 빛을 고취하자”고 말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궂은 날씨에도 이 자리에 참석한 교인들은 삼일절 노래와 독립만세 삼창으로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되새기며 조국 사랑과 민족 사랑을 다짐했다. 또한 이날 주일예배는 삼일절 100주년을 맞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사 61장 1절-9절)”이란 제목으로 김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다.

글렌데일 시립도서관 앞 정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과거 일제가 여성 인권을 전쟁의 도구로 착취한 역사를 알리기 위한 가주한미포럼(KAFC)의 ‘위안부 캠페인’을 통해 건립됐으며, 이 문제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가 3월 정기 조찬모임을 갖고 단체사진을 찍었다.

사우스베이목사회 3월 조찬기도회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변화시켜”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회장 이상훈 목사)가 3월 정기 조찬기도회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열렸다.

3월 6일(수) 오전 8시 가디나장로교회(신태섭 목사)에서 14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상훈 목사의 사회로 열린 조찬기도회에서 윤 목 목사가 대표로 기도하고, 신태섭 목사가 설교했다. 신 목사는 설교 본문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12절을 본문으로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서 참가자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안겨주었다.

신태섭 목사는 “목회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행복한 사역이다. 자녀들을 가르치기는 쉬우나 어른들을 양육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돌보기란 쉽지가 않다. 또 유순함으로 목회를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또한 쉽지가 않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준다”고 말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어서 합심 기도 순서에서는 △사우스베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부활절 새벽 예배를 위하여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합심 기도를 마치고 김현수 목사의 축도로 3월 조찬기도회를 마쳤다.

이날 모임은 가디나장로교회에서 준비한 조찬을 하는 것을 끝으로 마쳤다.

한편, 오는 3월 12일(화) 오전 11시에는 가나교회에서 원로목회자들을 초청하여 대접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목사회는 밝혔다.

성우 스캇 킴, 달란트 기부



현재 라디오코리아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스캇 킴 씨는 자신의 달란트로 교회에 도움을 주길 원하다고 전했다.

그는 “교회에서 성우 같은 목소리를 필요로 하시는 곳에 제 달란트 기부를 하고 싶다”며 L.A 인근 지역이라면 어디든 가서 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213) 810-4000

Email : scottkimstudio@gmail.com,

카톡 ID : scottkimstudio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102〉

유럽의 선교 부흥을 꿈꾸는 청년들(1)



이 상 훈 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유럽의 한 복판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교회에서 유럽의 청년들이 200여명 모인 선교집회가 있었다.

미주에는 물론 어디도 알려지지 않은 20대, 30대 초반의 청년들로만 모여진 집회였다. 필자는 지금 이 글을 쓰며 가슴이 뛰고 감격의 눈물이 흐른다. 이 모임을 적어도 독자 몇 분에게는 알리고 싶다.

약 6개월 전 미주의 한인 2세 청년, 자매가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진다는 소리를 들었다. 또한 수세기를 이어 온 교회의 예배당들이 교인이 없어서 매매되어 상점이 되고, 술집이 되고, 모스크가 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졌다.

유럽의 선교부흥을 꿈꾸며 그 청년은 홀로 독일행 비행기를 탔다. 그리고 6개월 후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첫 번째 열매를 본 것이다. 자매는 독일, 영국 등지의 발걸음이 가는 교회마다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면 목사님이든 성도든 그들에게 선교비전을 나누었다.

길거리나 레스토랑에서 또는 공원에서 만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선교비전을 같이하는 유럽의 친구들이 생겼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교 부흥을 위한 예배집회를 갖자고 제안했고 200명이 넘는 유럽 다민족 청년들의 서명을 받았다.

한인 청년 자매가 중심이 되어 자체적으로 준비위원을 구성했다. 장소도 그들이 섭외했고, 모든 경비도 참가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가 속한 선교단체의 본부에 강사 지원요청을 했다. 본부에서는 즉시 영어권의 리더쉽 두 명, 그리고 현지 다민족 선교사를 파송 지원했다. 미주에서 약 10명의 청년들이 예배팀을 섬기기 위해 자원했다. 필자의 교회 청년들 3명도 참여했다.

주일예배 때 교회에서 그들을 유럽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며 예배를 드렸다. 필자의 교회는 성도가 어떤 선교단체에 속하여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항상 주일예배 때 선교사 파송식을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길 떠나는 단기 선교사는 교회의 가장 귀한 사역자이다.

자신들의 동역자가 유럽에 가서 이룬 사역의 소식을 듣고 우리교회 EM 예배 때에 큰 회개의 기도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그리고 3명이 즉시로 유럽행을 결단했다.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청바지에 푸른색 티셔츠- 그 위에는 'HISTORY MAKERS'라는 글이 써진- 그리고 그리 크지 않은 백팩을 메고 그들이 공항 게이트로 들어 갈 때 필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감사하며 울었다. 정말 그들이 희망이다.

그렇게 참가하는 미주의 청년들이 유럽 청년들과 함께 모였다. 그들은 그 모임의 명칭을 "유럽 선교캠프 1기"라 했다. 비록 서명한 이들 중에 70명 정도가 모였지만 그 명칭에는 그들의 꿈이 담겨 있다.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2기, 3기를 계속하여 유럽의 선교 부흥을 꿈꾸며 그들은 모일 것이다.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다.

독일에만 머무르지 않고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그들은 유럽 모든 나라의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 에서 하나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연합이 온 열방으로 나갈 것이다. **(계속)**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성경은 행복 교과서입니다!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성경은 하나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다양한 축복을 주시며 축복을 통해서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축복 받은 사람들의 행복한(복받은)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림이 행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가르칩니다. 그 비결이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다'라는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지만 우리는 우울하고, 답답하고, 따분하고, 그리고 불편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유혹되어 범죄한 이후로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탄의 속삭임에 끊임없이 속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율법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며 침울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중세에는 일부 수도사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고행을 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지금도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은 경건한 삶을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닙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저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영생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토록 사는 삶'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개념은 '예수님과 함께'와 '행복하게' 입니다.

영생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리고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시작됩니다. 영생은 자유와 만족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기쁘고 행복한 삶입니다. 영생은 행복한 삶입니다. 이 영생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공간이 천국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완전히 행복한 삶이라면 천국의 행복을 맛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나마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들입니다.

성도들이 천국의 행복을 맛보는 시간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때 천국의 행복을 맛봅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지배하시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천국의 행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과 성령에 지배받을 때 행복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할 때 행복합니다.

성경언어사전(Dictionary of Biblical Languages)을 편집한 제임스 스완슨 박사는 히브리어가 '행복' 관련어가 가장 발달된 언어라고 말합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행복이 강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언어는 문화와 환경의 산물입니다. 위키백과 사전에 의하면 에스키모 사람들에게는 '눈'에 관련된 단어가 300개 정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늘 눈 속에 사는 그들은 눈과 얼음 관련어가 발달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복 관련어가 많은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행복의 문화, 행복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행복을 연구하고 행복을 갈구합니다. 행복을 누리는 삶의 지혜들이 유대인 문학 작품 속에 넘칩니다. 탈무드는 행복한 삶을 위한 랍비들의 충고들을 모은 책입니다. 세계 민족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행복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며 행복 언어를 개발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들의 영적 유산인 성경책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배우고 믿고 실천하며 가르치는 성경은 영원한 행복을 가르칩니다. 랜디 알콘(Randy Alcorn) 박사는 성경에 기쁨과 행복을 표현하는 행복 관련어들이 1,700회 등장한다고 주장하며 '성경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행복 교과서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행복의 비결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모범적인 행복을 구가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행복교과서 성경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신학대 한인동문회 정기모임이 3월 3일 예심교회에서 있었다.

캘리포니아신학대 동문 모임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남가주 한인동문회 정기모임이 3월 3일 오후 4시 사이프레스에 위치한 예심교회(정찬군 목사)에서 개최되었다.

동문회장 박종승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1부 개회예배에서 동문회 고문으로 위촉된 박대근 목사(전 재미고신 총회장)는 역대하 12:32 말씀을 본문으로 "마지막 시대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들로서 현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강력한 영적 리더쉽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며 "시대와 현실을 직시하며 분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길 촉구했다.

2부 순서인 회무처리에서는 회칙 통과와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동문회 주최 세미나, 동문 회보발행, 모교발전을 위한 협력" 등의 안건을 가결한 후 통성기도로 폐하였다.

한편 총동문회 주최로 금년 10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미국동문들과 한국동문들이 함께하는 개교 50주년 기념 총동문회 모임과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신학대는 1969년 개교 이래 현재까지 약 6천여 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했으며 TRACS(전미 기독대학협의회) 정회원으로도 가입되어있다.

문의: 714-336-1514 (박종승 목사)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기독일보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예수 닮아가기 153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 8:31)

Becoming like JESUS 153
If you hold to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s (John 8:31)

주일예배 (본당)
■ 1부 오전 7시 20분 ■ 2부 오전 9시 20분
■ 3부 오전 11시 20분 ■ 4부 (젊은이예배 Passion5) 오후 2시

HolyWave English Worship [킹덤드림센터(KDC)]
■ 1부 오전 9시 20분 ■ 2부 오전 11시 20분
2부, 3부 시간에 드려지는 HolyWave English Worship은 믿음의 차세대들이 이민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예배입니다
www.holywave.sarang.com
■ 영어청년부(NEXT) 도 함께 드립니다
■ 영어대학부 : 오전 11시 20분(본당 은혜채플)

교회학교 주일 2, 3부 예배시간에 함께 진행됩니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시 20분 / 토 오전 6시 20분
매달 첫 토요 G2G 비전예배 : 오전 6시 20분 (이중 언어로 진행)
AWANA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체육관)
사 랑 부 발달장애우 학교 : 주일 오전 9시 20분, 오전 11시 20분(112호)

남가주사랑의교회 Sa-Rang Community Church 담임목사 노창수 Rev. Chang Soo Ro, Sr. Pastor

■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 Tel: (714) 772-7777 ■ E-Mail: office@sarang.com
■ 교육관(킹덤드림센터/KDC): 1900 W. Crescent Ave. Anaheim CA 92801 ■ Tel: (714) 563-2422
www.sarang.com

인생이란

시편 103:10-2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본문 시편 103:10-22

인생(人生). 사람이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통곡으로 시작을 하고 살면서 한숨 쉬고, 여러 가지 질병과, 절망,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기도 하다가 때론 자신의 기대와 꿈과 잘 들어맞는 삶을 살게 되면 기뻐 뛰며 살다가도, 늘 좋았던 날수보다 괴로웠던 날이 더 많다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잘된 것은 내 덕이고 못된 것은 조상 탓이며, 이토록 불행한 것 또한 팔자소관이라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처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은 안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공간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그것은 흙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보물로 알고 잘못 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껍데기, 그릇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으면 마귀단지가 될 것이며, 그 속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단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고 온갖 좋은 조건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만 얻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 대접을 받게 됩니다. 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후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육체의 본능적인 욕구와 심리적 기대, 허욕과 탐심을 자꾸 자극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의 미끼에 걸려 완전히 신세 망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죽어서 영원토록 그 죄 값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11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했습니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같이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그 죄를 가장 먼 곳으로 버렸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13절은 마치 아버지가 잘못한 자식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심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로 말미암아 영혼의 소망을 그르쳤다는 것을 불쌍히 여기다 못해 하나 뿐인 아들을 우리의 죄 값으로 죽을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26~27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얼마나 겁없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심정으로 상대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15~16절에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했습니다.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덧없는 인생을 내세소망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17절 이하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생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니 그런 하나님을 모시는 한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은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고 그 목적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관리, 사용하셔서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서 진리와 성령으로 깨달아 회개하고 거듭나서 죄와 저주, 지옥 형벌을 영원히 벗어나게 되고 성령을 모셔들인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톨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톨스토이는 1828년 9월 9일 러시아에서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대문호(大文豪), 즉 세상에 널리 알려진 매우 뛰어난 작가입니다. 그의 글 중에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처음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이 시작되어 부자들은 재산을 다 빼앗기고 노동장에 이끌려 다니며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회에 불만이 쌓여 농민운동을 전개하다가 당을 반대한 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나와서 또다시 농민운동을 하려다 멀리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탐독하고 목회자들을 통해 질문하고 대화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도, 재물도, 지위, 명예, 젊음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로지 우리 인생은 신적 창조물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시며 그분께 붙으면 되살아나서 다시 살 수 있고 그분을 떠나면 죽음밖에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자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내 멋대로 인생을 설계해서 헛수고하고 실패하고 속아 살았던 지난날 불신앙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쓴 것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갈라디아서 6:8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어리석고 비참하게 잘못살고 있는지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지옥길이란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에 성령에 의지해서 영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12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했습니다. 교회까지 하나님이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드나들면서도 영생을 취하려는 노력도 없이 건성으로 왔다갔다 하다가는 결국 구원얻지 못하고 지옥 유황불 구덩이에 들어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되고 출세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허황된 망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모셔들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전3:16-17)"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7:3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적 지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 볼 수 없지만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체험, 감동케하심으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알게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하듯 우리의 인생은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영생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HC Free
환각 기능 없음

Dietary Supplement

대마 햄프 함초환

대마 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조 규 면 박사 Ph.D.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Korea Particle Therapy Cancer Center
Chairman & CEO / 햄프함초 제품 개발자

예고 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증, 중풍,
심장병, 치매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250 +tax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신이 내린 항암식물
대마 함초환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 대마씨 햄프씨드는 미국 타임지에서 슈퍼푸드로 선정

예고 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증, 중풍,
심장병, 치매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 각종 항암 식품으로서 최고의 효과
※ 당뇨 혈당수치 정상화에 크게 도움
※ 심장마비, 뇌졸증에 적인 나쁜 콜레스트롤 수치를 내리는데 도움
※ 대장에 도달해 나트륨을 배출해 내기 때문에 숙변 제거 및 대장암 치료 예방에 효과적
※ 햄프함초에 함유된 베타인(betain)성분이 혈관 청소를 도움

함초는 Baja California 유네스코 지정 청정지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제품은 질병을 병리학적으로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건강보조식품입니다

MANUFACTURED IN THE USA

CBD BAJAHAMCHO Inc.
www.hempbiousa.com

Tel. 213-605-2772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원천식 목사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끊어야"

시애틀기독일보는 서북미 지역 교회 부흥을 위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소개되지 않은 한인교회를 찾아 탐방하는 기회 시리즈를 보도합니다. 이를 통해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서북미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의 활발한 사역이 더욱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워싱턴주 밀턴(Milton)과 섬너(Sumner)사이에 에지우드(Edgewood)라는 다소 높은 지대에 속한 지역에 조이교회(Church of Joy 1120 114th Ave, East Edgewood)가 있다. 조이교회는 미국 교회 안에 한어권 예배가 있고, 여러 민족이 한 건물 안에서 자기들만의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민족 교회다.

조이교회 한어권을 담당하는 원천식 목사는 올해로 72세를 맞지만 아직 현역이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은 여느 젊은 목회자 못지 않다.

건국대를 졸업하고 일찍이 큰 꿈을 갖고 도미해 안정된 길을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선 그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워싱턴주 웨스턴 리폼드 세미나리(Westren Reformed seminary)를 졸업한 이후 줄곧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조이교회 한어권 담당 목회자로 사역한지는 벌써 10년째로 남다른 목회 열정과 타협 없는 신앙, 곧은 성품으로 사역에 매진하고 있다.

원 목사를 만나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원 목사는 "마태복음 16:1-16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하늘을 보고 날씨를 예측했으나 세상은 분별하지는 못한다는 책망과 같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다"며 "오늘날 크리스천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안목'이라고 강조했다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 삶의 전환 일어나야

그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과 기독교 종교지도자들 역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나의 구주로 믿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끊고 종교적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원 목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에 이르지만, 영어성경에는 항상 복수로 사용되는 자범죄(sins)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직접 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며 구원받은 이후 죄의 절연을 강조했다.

"삭개오는 누가복음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속여서 취함)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구약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하여 배상하는 법을 친히 지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만 구원 받은 이후의 성결의 삶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원 목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서로 교리적 특색은 달랐으나 그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종교일치라는 명분아래 예수님을 시험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악을 범했다"며 "성도들은 세상의 정욕과 유혹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주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2019년 시무회의 및 이사회 열어


제 100 회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지난회로 100회를 맞이했던 워싱턴 주 열방을 품는 기도 성회(회장 원 호 목사)는 지난 28일 훼드럴웨이 새교회 2019년 첫 시무회의를 갖고, 워싱턴 주와 세계 선교를 향한 중보기도를 힘있게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여호수아 14:6-15)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원 호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방을 품는 기도 성회가 10년 동안 이어져 지난회 100회 성회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워싱턴 주 지역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지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며 "갈렙과 같이 2019년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세계 선교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워싱턴 주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날 이민교회가 이민 1세대만을 위한 목회를 넘어 폭넓은 전도와 선교의 시각을 가지고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목회와 선교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지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 목사는 또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의 목적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이며,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믿음으로 묵묵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며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도전하는 한 해가 되자"고 덧붙였다.

워싱턴 주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선교보고와 안건회의를 통해 연 중 분기별로 기도성회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상임위원회 모임은 일 년에 두 번, 그리고 열방을 품는 목회자 기도회는 매달 열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올해 첫 기도성회를 오는 17일(주일) 오후 5시 30분 훼드럴웨이 갈보리교회(담임 김용문 목사)에서 갖기로 했다.

폴 원 기자

교회맞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주중 영혼의 샘 예배 오후 7:30(월,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자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아침예배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주일예배 - 버질중학교 (1가와 버몬트 코너) 152 N, Vermont Ave., LA, CA 90004
주중모임 -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상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08:30 영어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213) 267-0030 www.churchla.org

1부예배 오전 10:30
2부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각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 (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 일 교 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 lasehil2011@gmail.com
(8가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오전 6: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EM 오후 12:30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열왕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예배 오후 7:30
영유아부,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EM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 : 30 주일학교 오전 11 : 0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 : 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 : 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 : 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 : 3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예배실) 오전 11 : 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부,유아,아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김 신 담임목사
주향 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 : 30 주일학교 오전 11 : 0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 : 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 : 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 : 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 : 3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예배실) 오전 11 : 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부,유아,아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김 신 담임목사
주향 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은혜집회 오후 8:00
유치부,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청년대학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에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수요기도회 오후 8:00 / 금요기도회 오후 8: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 청년대학부 오전 11:0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 유초등부 오전11:00 /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 목요집회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t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00 / 3부예배 오전 11:45 /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5:3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00 / 3부예배 오전 11:00 / 4부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45 /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영어예배 오전 10: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금요예배 오후 8:00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주일예배 오전 10:30 / 수요예배 오후 8:00 /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 수요기도회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15 / 3부예배 오전 11:35 /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45 /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45 /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 수요기도 오후 7:30 /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 汉语查经班 : 周二 晚上 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 매일QT 월~금 오전 6:00 /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45 / EM예배 오전 1:00 /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 수요예배 오후 7:30 /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 주일 2부 오전 9:00 / 주일 3부 오전 11:00 (Blended Service) /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JCCC Academy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 EM 오전 11:1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 2부 오전 10:30 / EM예배 오후 12:30 /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 한어청년 오후 12: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9:45 / 3부 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 오전 11:00 / 유년부 오전 11:00 /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 Awana 오후 8:00 (금) /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 주일 2부 오전 9:30 / 주일 3부 오전 11:30 /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30 / 사랑의 빛 반 주일오전 11:30 /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 2부 예배 오전 11:00 /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 EM예배 (2부)오전 11:00 /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 영어예배 오전 10:00 /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T.(818)363-5887
MP채플 :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 Tel: (323) 837-09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40 / 3부예배 오전 11:30 /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이언주 의원 "종교인 과세 그나마 보완 되어 다행"

"도입 전 종교 차별 소지 있어 공개토론"



이언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언주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4일 오후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가 주최한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설명회'를 통해 이 법이 도입될 당시 자신이 느꼈던 문제점이 대해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종교인 과세'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왜 반대하는가'라는, 여런몰이가 있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종교인 과세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9월 기획재정부는 '세부과세기준안'에서 개신교의 경우 생활비와 사례비, 상여금은 물론 휴가비, 이사비, 도서비, 수양비, 선교비, 목회활동비 등 과세 항목을 무려 30여 개로 정해 반발을 샀었다. 이후 과세항목을 대폭 줄였다. 이 의원은 "30여 개 항목에 다 과세하면 국가권력이 종교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개입해서, 누가 많이 내는지, 도대체 이 돈은 제대로 된 것인지, 심지어는 교회를 세무조사까지 해서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이라며 "더 큰 문제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함께 발전해 온 종교"라며 "시스템에 의해 의사를 결정한다. 여러 의사결정 기구가 있어서 여기서 모든 걸 결정한다. 때로는 (그것이) 공개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당시) 종교인 과세(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 모든 건 과세대상이고, 시스템 없는 종교에서 봉투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전혀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며 "(이에) '심각한 종교 차별이 아닌가'라고 문제제기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항목이) 기독교는 30여 개고 나머지는 1~2개 정도라면 이는 특정종교를 겨냥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종교인 과세 제도를) 적절히 수정해야 한다'고 제가 주장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심만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세무조사를 하고 심지어 어디서 마련해서 헌금했는지 조사한다면 누가 편하게 헌금하겠는가"라며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했고 그마나 보완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하다보니까 소명의식까지 갖게 되어서 종교인 과세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반대를 하고 있다"며 "기독교를 두둔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믿는 건 딱 하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국가권력을 선출해서 그들에게 위임했을 뿐, 그 권력이 결코 주인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 권력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감시해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개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온갖 것까지 자기들만 생각하는 게 정의고 자신들 편에 있는 것만 진리라는 식의 절대주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적 진리를 가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다. 인간이 매우 부족한 존재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기 시작할 때 매우 무서운 사회로 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불건전 페미니즘에 대항" 남성운동 '아빠의 약속'

기독교가 중심이 된 비기독교 남성운동 '아빠의 약속'이 오는 9월 중 창립을 목표로 창립준비위원팀을 구성했다.

팀원 중 한 명인 김철홍 교수(장신대)는 3일 저녁 동산교회(담임 유종필 목사)에서 열린 제46회 샬롬나비 월례포럼에서 그 구체적인 취지와 목적 등을 밝혔다. 김 교수는 남성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21세기 들어 한국사회 안에 페미니즘을 기초로 하는 악성(惡性) 동성애 문화, LGBTQ를 지지하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이런 경향은 이미 불건전한 성문화가 널리 퍼져있는 우리사회를 더욱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교육을 통해서 이런 풍조가 건전한 판단력을 아직 갖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매우 불건전한 성교육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지나친 페미니즘은 젊은 세대 안에서 남성성(男性性)을 억압하고 남성들이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좋은 남편과 아버지로 성장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가장 심각한 것은 건전한 성문화와 그것에 기초한 가정이 점점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심화되어 전통적 가정이 줄어들고, 출산율은 수직 하강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종의 남성운동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에 불건전한 페미니즘이 있고, 억압받는 남성성이 정상을 회복하려면 남성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남성들 중에서도 결혼하여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아버지들이 주도하는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또 "과거의 남성 운동은 여성과 대결하고, 여성을 공격하고, 여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운동으로서, 그 확장성에 한계가 있었다. 기왕에 남성운동을 하려면 여성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여성의 지지를 받는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빠의 약속'은 가정이 해체되고 도덕적 기준이 무너져 가는 현재 한국사회 안에서 아버지들이 앞장서서 올바른 사회 윤리를 세우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문화를 책임지고 가르쳐서,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운동의 성격에 대해 "'아빠의 약속'은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비기독교 운동"이라면서 "이 운동에서 기독교인은 다른 비기독교인과 함께 회원이 되어 올바른 사회 윤리를 회복하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한다. 교회 안의 운동이 아니라, 교회 밖의 운동"이라고 했다. 운동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가정을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급진적 페미니즘이나, 동성애, 젠더(gender) 페미니즘에 대항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팀 켈러 목사

팀 켈러 "성경의 세계관, 다른 것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해야"

미국의 팀 켈러 목사가 "오늘날 포스트 기독교 문화는 성경적인 개념을 끌어들여 극단으로 이끌고 있다"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기반한' 개인주의를 기독교로 잘못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가스펠코얼리션(TGC)이 소개한 영상에서 켈러 목사는 "오늘날 서구의 포스트 기독교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문화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문화와 관련을 맺고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포스트 기독교 문화는 비기독교적인 문화나 이전 기독교 문화와는 많이 다르다. 이는 다양한 기독교적인 개념을 취하여 극단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켈러 목사는 "서구 문화에서는 성경적 원리들, 예를 들어 선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원리가 극도의 개인주의로 변화되고 있다"면서 "불행하게도 기독교인들이 이같은 개인주의를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로운 개인주의'는 '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선을 행해야 하고,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누구도 내게 성에 관해 어떻게 해야할 지 말해선 안된다'고 말한다. 반면, '보수적인 개인주의'는 '난 전통적인 가치를 믿지만,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한테 인종에 관해 말하지 말라. 난 누구도 노예로 삼은 적이 없으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생각하기는 너무 쉽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내가 '민주당과 공화당에 기반한 개인주의'라고 부르는 것의 영향을 받고 있다. 당신이 인도에서 자란 기독교인이라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힌두교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일본에서 자라난 기독교인이라면, 불교에 빠져들지 않겠지만, 자유로운 개인주의나 보수적 개인주의를 기독교라고 생각하며 둘 중 하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켈러 목사는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세계관 교육이나 변증학은 실제로 오늘날의 제자들에게도 필요하다. 문화 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이 매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일을 해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들이 존재하는 서구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이를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SNS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구절 달라져



ⓒAaron Burden on Unsplash

소셜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구절도 변화하고 있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데일리 텔레그레프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로 꼽았던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지만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희망과 번영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 인기라고 보도했다.

더럼(Durham)대학의 세인트 존스 칼리지 디지털 신학 연구센터 소장인 피터 필립스 목사는 "인쇄 문화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장 대중적인 성서 구절이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구절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것은 조금 무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로 알려져 있다. 이 구절은 빌리 그래함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했다. 그러나 3억 5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앱 유버전에 따르면 영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캐나다와 호주를 포함한 9개국의 차트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에 관한 구절들이 인기가 있다고.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행복과 건강을 추구하는 '웰니스'(Wellness)와 영성을 소셜미디어로 표현하려는 젊은이들의 흐름을 드러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SNS 사용자들 사이에서 성경의 인용문과 자신의 이미지를 합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성경 렌즈'와 '유버전'의 이모티콘 검색 기능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성경, 디지털 문화, 소셜미디어'의 저자인 필립스 박사는 "밀레니얼 세대는 치료적 메시지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분석했다. 성서공회 레이첼 라운즈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구절은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초월한 희망에 관한 것"이라며 "이것은 문맥이나 뉘앙스를 드러내기 어려운 소셜미디어에서 전달하기 쉬운 개념이 아니며 정치인, 과학자 및 교회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유버전 대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세계적으로 상위 20개 순위에 오르는 "매우 인기있는 구절"이라고 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이미경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O.C, 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통독모임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초등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이명이 담임목사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 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1:3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기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생명으로 열방을 살리는 예배공동체! ALL IN JESUS 예수께 모든 것을 거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EM CHURCH

















"북한인권 외면한 평화? 참된 평화 아닌 거짓 평화"

납북자와 북한 억류자들 석방 촉구



기자회견 모습 ⓒ협의회 제공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즈음해, 납북자와 북한 억류자들을 기억하는 모임이 개최됐다.

'제38차 북한억류자 송환 및 6.25 납북자, 김동식 목사 등 납북자 생사확인과 유해송환 촉구' 기자회견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개최됐다. 주동식 회장(김정욱 선교사 후원회)은 인사말에서 "2013년 10월 북한에 억류돼 6년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6명의 무사 귀환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38번째로 집회를 갖는다"며 "비핵화도 좋고 평화선언도 좋지만,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 6명의 무사 귀환이 이뤄지지 않는 회담은 잘못된 회담"이라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1번 만나 억류했던 한국계 미국인 3명 모두를 풀어줬지만, 문재인 대통령과는 3번이나 만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풀어주지 않고 있다"며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도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 국민을 억류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랜 감옥 생활로 김정욱 선교사의 건강이 매우 나빠졌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이 된다"며 "지금도 가족들은 무사귀환을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오토 웜비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즉각 대한민국 국민 6명을 집으로 돌려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김기용 회장(6.25납북결정자가족회)은 연대발언에서 "6.25 전쟁 시기 우리의 아버지들이 억울하게 북한으로 끌려가 지금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 내년이면 6.25가 발발한지 70년인데,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살아온 기나긴 세월을 생각하면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털어놓았다.

김 회장은 "종전선언을 하려면 제네바 협약에 따라 포로와 민간인 억류자를 먼저 송환해야 한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려 한다면, 먼저 6.25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유해송환을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달라"고 했다. 황인철 대표(KAL기납치피해자 가족회)도 "1969년 MBC방송 PD였던 아버지는 출장을 위해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다 북한 공작원에 의해 공중납치를 당해 50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납북자들의 가족이 송환되지 않는 한, 진정한 평화의 시작은 절대로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국민 여러분들의 가족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 가족도 너무나도 소중하다"며 "진정한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우리 가족과의 만남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대표)는 성명서 낭독에 앞서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얻어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거짓 평화다. 대한민국 국민 6명의 무사 귀환 없는 평화회담은 나쁜 회담"이라며 "10만여명의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얻어지는 평화는 비겁한 평화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비겁한 평화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용기있고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억류자를 석방하고 국군포로, 6.25 납북자, 납북어부, KAL기 납북자, 김동식 목사를 비롯한 모든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막중한 책무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5월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전격 석방됐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억류자들과 함께 북한을 떠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는 미국 시간 새벽 3시 앤드루스 공군기지으로 직접 마중을 나가 억류자들을 환영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소개했다.

또 "자국민 보호를 위해 애쓰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래서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구나' 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는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제 다음 차례는 김정욱 선교사(2013년 10월 억류), 김국기 선교사(2014년 10월 억류) 최춘길 선교사(2014년 12월 억류), 고현철 씨(2016년 7월 억류)를 비롯한 탈북민 3명 등 우리 대한민국 국민 6명의 무사 귀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 비핵화와 평화구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북한인권 문제들"이라며 "특히 대한민국 국민과 관련된 북한 억류자들의 송환과 국군포로, 6.25 납북자, 납북 어부, KAL기 납북자, 김동식 목사를 비롯한 모든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유해송환, 이산가족 자유상봉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성명서에서는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종전을 할 경우 포로와 억류된 민간인을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 논의와 함께 국군 포로와 6.25 납북자를 비롯한 모든 민간인들의 석방과 생사확인 및 유해송환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종교탄압, 공개처형, 고문, 구타, 강제노역 등의 북한 인권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대웅 기자

"낙태에 반대하는 미국인들 늘어"

현지 설문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 비율 거의 비슷

낙태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2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마리스트회(Marist)가 1,008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낙태 반대 입장과 찬성 입장이 47%로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이런 결과는 10년만에 처음이다.

이전 조사에서 낙태 반대자들(38%)보다 낙태 찬성자들로 인식(55%)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 결과와 비교하면 17% 정도 낙태 반대자들이 더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낙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지난 1월에 20%인 반면, 2월에는 34%로 증가했다. 낙태를 찬성한다고 밝힌 이들의 숫자는 75%에서 61%로 줄어들었다.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 낙태 반대로 입장을 전환한 경우도 있었다. 45세 이하 응답자 가운데 지난 1월에는 낙태를 반대한다는 입장이 28%에서 2월에는 47%로 증가했다. 낙태 찬성자들은 65%에서 48%로 하락했다.

마리스트 설문 조사를 책임한 바바라 카발 발 디렉터는 "최근 낙태에 대한 법적 변화와 그에 따른 논쟁에 대해 일반 대중들이 간과하고 있지 않다"면서 "불과 한 달 만에 자신을 낙태 반대자라고 밝히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낙태 찬성자라고 밝히는 비율 역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기자

배움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배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마 11:29)고 초청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겸손히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눅 2:46)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배움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늘 배웁니다. .

우리는 지난 주일 오대원(David Ross) 목사님과 엘렌 로스(Ellen Ross) 사모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모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중에 "종신 선교사로 60년간 한국을 품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사모님은 "참 사랑을 배운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엘렌 사모님은 "결국 사랑한 것만 남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인터뷰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저는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분들의 생애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오대원 목사님을 만나면서, 다시 한 번 아름다운 끝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밥 버포드(Bob Buford)가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헨드릭스 교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삶을 잘 마무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던가요?" 교수님의 답변은 지속적인 배움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우선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살아 있는 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배우기를 멈추면, 내일 성장도 멈춥니다. 나이 든 사람 중에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사는 사람이 많더군요. ...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헨드릭스 교수님은 삶을 잘 마무리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목적 지향적인 삶이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돈이나 어떤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시몬드 보부아르는 《노년》이란 책에서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확실한 두 가지 비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은퇴하기 전에 하는 일과 은퇴한 후에 하는 일 사이에 연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년에도 계획을 세우고, 추구하는 일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밥 버포드, 『하프타임 고수들』) 오스 기니스는 "직업에서 은퇴할 수 있어도 소명에서 은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각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 때 각 사람은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본능 중 하나는 "성장 본능"입니다. 사람은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성장을 통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자라는 것은 잡초뿐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배움을 선택해야 합니다.

배움의 열매는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저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성품으로 자신을 가꾸신 분들을 만날 때 감동을 받곤 합니다. 그분들은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사람들을 차별 없이 존중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신중하며 절제할 줄 압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칭찬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압니다. 슬픈 일을 당하는 분들을 진심으로 위로해 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배움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네 가지 사랑으로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 사랑, 참된 자기 사랑, 가족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배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얼굴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엘렌 로스 사모님은 "기쁠 때에도 눈물이 날 때에도 혹 근심이 있을 때에도 주님 얼굴을 바라본 것이 내가 가장 잘한 일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 얼굴을 늘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사랑하고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날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절망의 세대 속에 소개된 소망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사뮈엘 베케트의 대표작 "고도를 기다리며"(Waiting for Godot)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고 의아해 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대사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연된 작품을 지금 다시 보아도, 몇 되지 않는 인물의 대사를 명쾌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뮈엘이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럭저럭하다가 노벨문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미를 모른다고 전문가들이 엉터리는 아닙니다. 이 작품은 전에 없었던 장르, 즉 "부조리극"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유럽이 정신적으로 붕괴되면서, 아울러 가장 개화된 유럽이 전쟁으로 처참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의 지성들이 인간의 불합리와 절망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시대의 철학자 중 하나인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는 "인간을 내 던져진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알베르 카뮈는 인간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며 절망스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뮈엘 베케트는 그 불합리와 부조리한 상황을 작품 속에서 밑도 끝도 없는 정체불명의 대화를 통해 이어갑니다. 음습함과 불안, 합리적인 이성으로 딱 떨어지지 않고 모호하게 이어지는 대화가 그 특징입니다. 불안과 절망과 몰이해의 안개가 이 작품의 전편에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던져진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품의 절망 속에서 변치 않는 한 가지 도전적 단어는 "기다림"입니다. 작품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도(Godot)가 하나님(God)인지 재림주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못내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는 등장인물보다 낫다는 것을 작가는 넌지시 말합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지만,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정확한 소식을 전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소망을 기다리는 쪽이 더 낫다는 결론입니다.

오늘도 성도들은 암울한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혼합주의와 상황주의의 혼돈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참 진리이고 대안인가를 질문 받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죽었다"고 하며, 혹은 우리가 "신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회에 의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황제숭배가 만연되기 시작하던 서기 50년대 초반에, 사도 바울은 절망적 세상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이다! 그리스도가 대안이다! 교회가 대안이다! 교회의 잘못을 바라보며, "교회가 소망"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정말 당신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살전 2:20)이라고 고백합니다. 소망은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에 있습니다.

비전의 능력



박 성 근 목사
남가주새누리교회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 남은 사람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던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 속에 던져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절망의 수용소 안에서 생존을 가능케 해주는 것인가?"

그는 건강, 활기, 가족 구성, 지능, 생존기술 같은 몇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보았지만, 그 어느 것도 일차적 요인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생존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살아서 해야 할 사명과 꿈이 분명한 사람은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이 주는 힘입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은 주어진 현실이 어두워도 그것을 넘어 섭니다. 비록 실패가 거듭되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와 시련 너머에 있는 더 큰 목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비전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비전이 우리 인생의 눈을 뜨게 하고, 힘든 현실을 이겨내게 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뚜렷한 목표의식이나 비전이 없이 닥치는 데로 하면 사역의 방향도 흐트러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해서, 사도 바울도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빌 3:14)고 했습니다. 바울의 일생과 사역은 뚜렷한 방향과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 숱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한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이루어질 인생의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이나 가정을 위한 것이건, 혹은 교회와 선교를 위한 것이건, 꿈을 품은 자만이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늘의 꿈을 향해 계속 달려 가시길 축원합니다.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숏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T:(562)383-3566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
비만의 개선
Cyclo-Z 세계최초 당뇨치료를 위한 생약제재
전립선 질환 개선 및 알츠하이머의 예방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환자 인지율: 30~44세 54.4% / 45~64세 73.2% / 65세 이상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자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모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 · 지방 · 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압 · 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압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놀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췌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췌의 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공팡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성향에 노출된 분들일수록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젊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 43%(하지절단) 37%(미세혈관병증)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 37% 미세혈관 합병증 / 21% 당뇨병 관련사망 / 14% 심장마비 / 12%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의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 3병 $180+Tax /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GAIA CODYCEPS
가이아 동충하초
겨울에는 곤충으로 있다가 여름에는 버섯으로 피어난다 하여
동충하초(冬蟲夏草)라는 이름이 불었습니다.
등소평이 94세까지 장수하기 위해 가장 즐겨먹던 음식.
다른 성분은 일체 넣지않은 100% 동충하초 분말
한국 가이아 팜에서 재배한 유기농 동충하초를 미국으로 직송
코디세핀이 풍부한 21세기 천연항생제
한국 식약처 안전 검사필 (No. 2013-0372219)
면역세포증식
치매예방
당뇨
성기능 증진

구입 문의 213.434.1170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260., LA, CA 90005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ORION AUTO SERVICE
•SMOG •INSPECTION
•TUNE-UP •BRAKE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323)732-4669
VALERO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Scott Kim Studio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담아 드립니다.
10년 후 펼쳐봐도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Scott Kim Studio가 함께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남기세요)
- 교회 출장 사진 전문
- 영정 사진
- 가족 사진
- 입관·하관 예배
- 부동산 홍보

결혼 사진, 제품 사진
회사 이벤트, 인물 사진

213·810·4000
scottkimstudio@gmail.com
Kakao talk ID : scottkimstudio

목소리 재능 기부
현재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스캇 김입니다.
교회에서 성우 같은 전문적인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LA인근 지역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사는 법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 한국리더십학교의 필독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세 가치 차원의 놀라운 비밀. 세상과 교회로 이분화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 받을 수 있다.
마이클 밀러 (Michael D. Miller) 지음. 한국리더십학교 옮김 / 152면 / 9,000원
추천 김지철(소망교회 담임목사) 임성빈(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이승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팀 빌딩
TEAM BUILDING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2
이 책은 골로새서 3장 11-17절 말씀을 본문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관찰한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있는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우리 공동체의 건강지수를 알아보고 공동체에서 나의 건강지수를 알아보는 코너도 있다.
김평욱 지음 / 252면 / 12,000원
- 1장 건강한 공동체 (A.L.P.S.)
  - A-Appreciation(감사)
  - L-Love(사랑)
  - P-Peace(평화)
  - S-Service(섬김, 예배)
- 2장 건강한 공동체의 기초 (4 Foundations)
  - Faith(믿음, 신앙의 근본)
  - Fruits of Holy Spirit(성령의 열매)
  - Forbearing one another(서로 용납)
  - Forgiving each other(피차 용서)
- 3장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C.L.I.M.B.)
  - C-Caring(보살핌)
  - L-Listening(소통)
  - I-Intercession(중보기도)
  - M-Mentoring(멘토링)
  - B-Boundary(경계)
- 4장 건강한 공동체의 정상 (U.P.)
  - U-Unity(연합)
  - P-Passion(열정)

오래오래 빛으로 가슴에 남아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책
질문 있습니까?
저자 이종구 목사는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강의한 저자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질문 6개와 사람의 질문 5개를 살펴보면서 의심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준다.
이종구 지음 / 328면 / 14,000원

한글인터넷주소 쿰란, 쿰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6 ☎ 02-747-1004 쿰란출판사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일본 기독교인
‘고아의 아버지’ 소다 가이치(上)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2019년,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가 우려스럽다. 관광과 한류 등 민간 교류는 활발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악화일로에 있다. 과거사 반성과 함께, 일본 선교를 위해서라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설정이 절실한 때다.

19일 서울 양화진. 눈 덮인 풍경을 기대했건만, 오전 내내 내린 함박눈은 오후 늦게서야 나타난 햇살에 완전히 녹아 있었다. 겨울 잔디와 나무들은 물을 잔뜩 머금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한적한 묘원에서 연신 셔터를 누르자, 이름 모를 새들이 반갑다는 듯 번거롭다는 듯 쉬지 않고 노래했다. 물과 물이 만나고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곳, 그 옛날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들이 잠든 서울 합정동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그가 있다.

일본인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의 문화훈장을 받은 인물, 소다 가이치(曽田嘉伊智, 1867-1962). 그는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에 안장된 유일한 일본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소다 옹’은 1905년부터 1945년까지 40년간, 그리고 1961년 ‘귀환’ 후 1962년 소천할 때까지 한국에서 지내며 평생 고아들을 섬긴, ‘한국 고아들의 아버지’다.

‘영원한 YMCA맨’ 오리 전택부 선생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묻힌 선교사들을 조명한 책 〈양화진 선교사 열전(홍성사)〉에서 소다 가이치 선생의 일대기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자리한 소다 가이치 부부의 묘. ⓒ이대웅 기자

예수를 믿기까지, 한국에 오기까지

소다 가이치는 1867년 10월 20일 일본 야마구치현 소네무라스미다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오카야마 시에 있는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고, 21세 때 고향을 떠나 방랑생활을 했다. 나가사키로 가서 학자금 마련을 위해 광부로 일했고, 25세 때 노르웨이 화물선 선원이 되어 홍콩으로 갔다. 거기서 열심히 영어를 배웠다.

1896년 청일전쟁 후 일본 식민지가 된 대만으로 갔다. 독일 사람이 경영하는 어느 공장의 사무원 겸 통역으로 일하며 독일어를 공부했고, 잠시 중국 본토에 가서 해군에 종사하며 혁명운동에 가담하기도 했다. 그러다 대만으로 돌아가 산악지대를 방랑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

31세 때인 1899년 어느 날, 그는 한 거리를 방황하다 거리에서 너무 술에 취해 쓰러졌다. 완전히 의식을 잃고 거의 죽게 됐을 때, 이름 모를 한국인 한 명이 지나가다 그를 발견하고는 업고 여관으로 데려갔다. 이 한국인은 그를 치료하고 밥값도 대신 내줬다고 한다.

소다 가이치는 이를 잊지 않았다. 6년 뒤인 1905년 6월 ‘은인의 나라에서 은혜를 보답하리라’ 결심하고 서울에 정착한다. 서울YMCA 전신인 황성기독교청년회 학관에 일본어 선생으로 취직했다. 을사조약으로 국권이 빼앗기고, 기독교적으로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던 때였다. 대한제국의 민족 지도자들은 기독교에서 활로를 찾고 있었다.

그는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풀려난 월남 이상재 선생에게 큰 감화를 받고, 1906년 기독교 신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평생 그를 스승으로 삼을 것을 다짐했다. 이상재와 함께 이승만, 김정식, 홍재기, 유성준, 윤치호, 김규식 등이 YMCA에 모여들던 때였다.

그가 신앙을 갖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 1908년 우에노 다끼와 결혼한 것이다.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18세 때 일본 나가사키 기독교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숙명여학교와 이화여학교의 영어 교사를 맡고 있었다.

30세 우에노와 결혼한 41세 소다는 새 사람이 됐다. 지독했던 음주벽을 완전히 청산했고, 금주회 회장까지 지냈다. 술 때문에 여러 차례 죽을 뻔 했던 그가 배우자와 신앙 때문에 달라진 것이다.

YMCA 종교부 총무이던 스승 이상재 선생은 ‘백만명구령운동’의 일환으로 전도운동에 나섰고, 소다 가이치도 참여했다. 그러다 일본어 선생까지 그만두고 일본인 경성감리교회 전도사가 돼 복음을 전했다.

고아의 아버지, 하늘의 할아버지

소다 가이치는 일본인으로서 피지배국인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다 박해와 멸시, 오해를 숱하게 받아야 했다. 1911년 YMCA 조직을 말살하기 위해 일제가 꾸민 ‘105인 사건’ 때 이상재 선생 등 많은 지도자들이 죄 없이 투옥당하자, 동분서주하면서 석방운동을 벌였다. 대법원장 와타나베에게까지 찾아가 석방을 호소하면서, 일제의 불의와 만행을 맹렬히 공격했다.

그러나 오히려 한국인들은 ‘간사한 놈’, ‘일본의 스파이’라며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다. 일본인들은 더했다. 총독부 관리들은 그를 ‘배신자’, ‘한국인의 앞잡이’로 몰았다. 양쪽에서 공격받는 처지가 됐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후 1921년, 그는 가마쿠라 보육원 경성지부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이 보육원은 1896년 사다케라는 일본인이 세운 곳으로, 1913년 고아원 출신 중 연장자를 한국으로 파송해 경성지부를 설치한 것이다. 해방 후 한경직 목사가 이어받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서울 후암동 영락보린원의 전신이다.

한국 근대식 고아원의 시작이었던 그곳에, 5년 뒤인 1926년 부인 우에노 다끼도 교사를 퇴직하고 합류해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1939년에는 총독부로부터 과거 왕가 소유 대지 1천여평(3300㎡)과 소속 건물을 무상 대여받아 규모를 확장하고, 해방까지 1천여명의 고아들과 함께했다. 지금 영락보린원이 위치한 그곳이다.

소다 가이치 부부는 고아들을 돌보면서 많은 고생을 해야 했다. 버려진 갓난아기를 안고 유모를 찾아다니다 구박을 받기도 했고, 아기가 너무 울어 밤잠을 이루지 못한 날은 부지기수였다. ‘거지’, ‘위장한 자선가’ 등의 비방은 계속됐다. 중일전쟁이 한창일 때는 고아들에게 항일교육을 시켰다며 헌병대에 끌려가기도 했다. 헌병대가 잡아들인 청년은 독립운동 지하조직 일원으로, 보육원 출신이었다. 소다 가이치는 보육원 출신의 고아가 독립을 위해 싸우다 잡힌 애국투사가 된 것이 기뻤지만, 내색하지 않고 헌병대에 용서를 구하면서 석방을 간청했다고 한다. 그런 그는 한국의 ‘하늘 할아버지’, 우에노 다끼 여사는 ‘하늘 할머니’로 불렸다.

한국인들만 좋아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체험했다. 경제난으로 보육원이 폐원 위기에 몰렸을 무렵, 정문에 편지와 함께 놓인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다. ‘소다 선생 내외분이 하시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인 줄 압니다. 우리 동포를 대신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 국외로 망명합니다. 도둑놈은 아니니 안심하시고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 써 주세요.’ 옷가지와 시계, 그리고 1천원이 함께 들어 있었다. 소다 옹 부부는 감격의 기도를 드렸다.

소다 가이치는 원산감리교회에 교역자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1943년 가을 77세의 나이에 무보수 전도사로 갔다. 부인은 서울에 남아 보육원을 운영했다.

1945년 8·15 해방 후, 원산에 들어온 소련군은 일본인 집을 다짜고짜 습격해 약탈하고 부녀자를 겁탈했다. 일본인들은 집을 버리고 교회로 몰려왔다. 소다 전도사는 교회 입구에서 그들을 지키고 섰고, 소련군은 그냥 돌아갔다.

81세 소다, 성경 들고 전국 돌아다녀

1947년 5월, 소다 옹은 원산 내 일본인들이 마지막 철수하는 길에 서울로 함께 떠났다. 보육원 아이들과 부인을 다시 만났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고 고국 일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도, 패전국이 된 절망의 땅 일본으로 돌아간다.

떠나기 전, 소다 옹은 부인과 세 가지 서약을 했다. 첫째, 과거와 같이 하나님 은혜를 확신한다. 둘째, 어떠한 재난이 닥쳐도 십자가를 우러러보며 마음의 평화를 간직한다. 셋째, 하나님의 가호를 빌며 살다가 천국에서 만난다. 그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 미군 배를 얻어타고 일본 시모노세키 항에 도착했다.

81세의 소다 옹은 그때부터 한 손에는 ‘세계평화’라는 표어를, 한 손에는 성경을 든 채 전국을 다니며 조국의 회개를 부르짖었다. 원자탄으로 폐허가 된 히로시마를 비롯해, 최남단 규슈부터 최북단 홋카이도까지 다녔다. 당시 소다 옹은 한국 영주권을 소유하고도 일본에 돌아온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지금 한국인들은 광복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일-한 친선이 반드시 이뤄질 줄 믿는다. … 경성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일본 여성이 7-8백명이나 있다. 나는 이승만 씨와 만났을 때 재일 한국인 60만에 관하여 일본인들이 조금 더 올바른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장차 한국인들과 같이 있기를 원한다.”

“오 하나님, 인류가 범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전국을 순회하다, 그는 폐렴에 걸려 생사를 오갔고 도둑을 만나기도 했으며, 자동차에 치어 죽을 뻔 했다. 그러다 1950년 1월, 아내 우에노 다끼가 74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그는 슬퍼하기는커녕, 약속대로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의 가호를 빌었다.

“그녀는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봉사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하늘나라에서, 아니 그녀의 영혼은 늙은 남편과 같이 여행하면서 힘이 되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녀는 이 늙은이 대신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해방 5년밖에 되지 않아 일본 배척의 기운이 강했지만, 장례는 당시 사회부 장관을 장례위원장으로 하여 한국사회사업연합회장으로 엄숙하고 성대하게 거행됐다.

이대웅 기자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19년 봄학기 학생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에서 2019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 집 과 정

◈학사 과정
신학사
선교학사
기독상담학사
기독교육학사

◈석사 과정
교역학석사
신학석사
선교학사
기독상담학사
기독교육학사

◈박사 과정
신학박사
선교학박사
기독상담학철학박사
기독교육철학박사

봄학기 개강 3월 30일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A, CA 90057 | TEL: 310-678-6836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참,(진리의 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가능
2)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 수여가능
3)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 (학점교환 가능)

봄학기개강 월 일

입학상담: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중입자 치료로 암 4기까지 치료가 가능해요”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조규면 대표 LA 방문



한국중입자암치료 센터 조규면 대표는 부친의 말기암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연구한 결과 중압자 치료를 발견했고 이 치료 방법을 통해 부친의 병이 완치됐다고 말했다.

‘현존 최고의 최첨단 암치료법’으로 꼽히는 중입자 치료를 한국인 최초로 고국에 소개한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KPTCC) 조규면 대표가 최근 LA를 방문했다.

조 대표가 LA에 방문한 이유는 지난 20일 LA한인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제42회 한인상공인의 밤’ 행사에서 ‘올해 국제경영인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지난 2011년 한국 정부로부터 ‘신지식인’ 인증 및 신지식 경영인 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 현재 예능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지도자로 널리 알려진 조만식 장로의 증손이기도 하다.

중입자 치료기는 양성자와 중이온(헬륨, 탄소, 질소, 우라늄 등)을 전자기의 힘으로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하는 장치로, 암 치료에 이용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전문가 설명에 따르면 양성자 가속기와 중입자 가속기는 적은 양의 방사선으로도 인체에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는 암세포를 정밀하게 타격해 괴사시키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

조 대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중입자 치료를 꿈의 암치료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암세포를 잡기 어려운 혈액암 외에 식이암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암을 1기부터 4기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라며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아니라 통증이 없고 전이가 되지 않아서, 완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에 2021년까지 외국인 투자를 70%로 해서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KPTCC는 2012년에 한국 최초로 독일로의 해외이송치료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지금까지 500여명의 환자를 이송하고 증례를 남겼다. 그는 “현재 중입자 치료는 독일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데, 독일 수술기계가 암 1-4기까지 치료가 가능해, 1-2기 까지만 치료할 수 있는 일본 기계보다 우수합니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중입자 치료를 알게 된 것은 70세에 말기암에 걸린 아버지의 치료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암 4기 환자이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상이 일제로부터 고문을 당해 돌아가셔서, 그것이 한이 되어 암이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독일, 일본, 미국 등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공부한 끝에, 중입자 치료를 받아 암이 완치되었습니다. 4기 환자는 중입자 치료만으로는 안되고 방사선 치료도 병행합니다”

조 대표는 제주도에 중입자암치료센터가 세워지면 소아암에 걸린 어린이들을 무상으로 치료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의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암센터가 세워지면 1년에 5천여명이 치료를 받을수 있는데, 그중에 10%를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 치료를 위해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린이들이 소아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한국 의료계의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지원할 것입니다”고 밝혔다.

그는 중입자 치료가 알고보면 성경에서 예수가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으로 치료하는 입자 치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되어 있는 대마의 효능에 대해 강조했다. 중입자 치료를 받고 나서 햄프함초(HAMP HAM-CHO)를 복용하면 암환자들에게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보조식품은 대마 오일과 함초 및 미네랄, 각종 비타민으로 구성됐다.

조 대표는 “1900년대 초에 글로벌한 한 회사가 아랍의 원유 국가와 손을 잡으면서 석유와 담배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론계에도 진출하면서 백해무익한 담배와 석유는 세상에 홍보가 되어 소비가 되기 시작했지만, 몸에 좋은 대마는 인식이 안좋아졌습니다. 사실 대마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고, 타임지가 슈퍼푸드로 선정한 식물입니다. 대마에서 나오는 카나비디올이란 오일은 유대인들이 치료용으로 쓰고 있고, 대마로 삼베를 만들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등 대마초 외에는 정말 인류 건강에 꼭 필요한 식물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중입자 암치료를 고국 및 미주 디아스포라들에게 소개하기에 앞장선 조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토마스 맹 기자

침묵으로 예배당 도는 北의 그루터기 신앙(下)

[지난 호에 이어서] 복음통일 전문가 세미나가 진행되던 2월 14일, “북한지하교회의 실체와 성도의 신앙”을 강의한 강석진 선교사를 세미나 장소인 파세디나 사랑의빛 선교교회에서 만나 그들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강 선교사는 1992년 압록강 건너편 중국 단동 지역에서 북한선교를 시작해 북.중 접경지대에서 탈북민과 북한 지하교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왔다. 현재 ‘북방선교회’, 충주양의문교회’, ‘새하늘선교회’의 선교 담당 목사로 있다.

통제된 세상,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

통제된 세상 속에서 살다보니까 낯선,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신기해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꾸 금하면 호기심을 갖게 돼요. 해방 이후에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자기들끼리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세대 지하교인들 뿐 아니라 1960년 이후에 태어나 자생적으로 크리스천이 된 2세대 지하교인들도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국경지대의 조선족들 즉, 심양, 하얼빈의 조선족들 가운데 친척이 이북에 혹은 이남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지방문이 가능하죠. 북한 주민이 중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러 왔다가 친척을 통해서 전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받는 사람들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게 됐냐면, 92년 10월에, 노태우 대통령 때 중국과 수교가 맺어져서 한국의 선교사, 실업인, 유학생들이 중국에 가게 되었잖아요. 자연스럽게 중국 조선족을을 알게 되고 작은 마을에는 처소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수십만명의 조선족이 사는 동북삼성의 중심지인 심양에 있는 서탑교회에서 동북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다. 박형룡 목사가 신사참배가 극심해 지니 심양 만주의 동북신학교로 가서 가르쳤습니다. 그 지역 조선족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많았고 동북삼성에 가정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중국의 처소교회들이 상당히 부흥되었습니다. 또,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 선교단체를 통해서 장기 양육을 받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면, 이들을 통해서 본토의 한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중국 선교로도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다 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94년에 김일성이 죽고 97년부터 북한의 어마어마한 기근사건, 일명 고난의 행군 때 북한에서 많이 넘어 왔습니다. 그 당시 3-4년 동안 300만 명이 굶어죽었습니다. 많은 북한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압록강을 건넜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이 압록강 건너편의 조선족 처소교회였습니다. 그 배후는 한국의 선교사들과 미국의 한국 선교사들의 지원이 있었죠.

난민 사태가 96년부터 2000년 초까지 이어졌고, 저도 그때 탈북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게 탈북민이 많아지면서 북한에 복음이 많이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께서 대기근을 통해서 북한이 복음화가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대량 탈북 사태가 국제적인 문제가 되니까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체포하는 작전을 썼습니다. 국경지대에 불법 도강해 온 이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북한 당국에 넘겼습니다. 이러다 보니 양육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돌아간 사람, 성경 매고 자발적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체포되어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압록강 두만강 접경 지대에 검문이 강화되니 이 사람들이 동북 삼성의 큰 도시로 도피를 하게 되었죠. 중국이 계속 탈북자를 색출하고 강제 송환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탈북자가 거주하는 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중국에 와서 자유를 만끽하니 돌아가기 싫어졌죠. 그래서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을 거쳐 가 한국으로 오는 루트가 개척됐고, 2천년대 초부터 대량으로 많이 (한국으로)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들이 주로 왔는데 점차 여자들로 바뀌었어요. 여자들은 일자리가 많으니 폭력배들이 취직시켜준다고 유인해서 농촌에 있는 중국인 노총각, 성매매 업소에 팔아 넘겨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제재가 심해졌습니다. 강제 수용소 보내고 북한에서는 체제의 위협으로 보고 공개 처형을 시킵니다. 지도자급은 공개처형을 할 때 ‘남조선의 선교사를 만났다’라는 죄목을 쓰는 게 아니라 ‘남조선과 연계되어서 첩보활동을 했다’는 죄목을 붙입니다. 그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의 반세기 만에 복음이 확산된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그 땅에 많은 피를 흘리게 됐습니다.

강 선교사는 스마트폰 앱 ‘nkmission.net’을 통해 더 많은 북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새로운 교회 새로운 목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25)– LA New Church 최순환 목사



최순환 목사는 청년이 중심이 되는 교회, 청년을 수용하는 교회로 LA New Church를 세워가고 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즐비한 LA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개척 교회 목사로 살아가는 최순환 목사를 만났다. 괴짜 목사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비신자들을 전도하며 새로운 교회, 젊은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한인타운 안에 한인 교회가 350~400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있으니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기자도 그랬다. 최 목사를 만나면 던지고 싶은 첫 질문이었다. 그러나 최 목사를 만나며 그 질문은 까마득하게 잊게 되었다.

만나자마자 그가 쏟아내는 전도의 열정과 새 생명에 대한 비전에 몰입됐다. 그의 생각과 접근은 ‘신선함’을 지나서 ‘파격’이었다. 짧은 시간의 대화를 통해서 최 목사가 섬기는 교회 이름을 왜 ‘New Church’로 정했는지 알게 됐다. New Church는 정말 새로운 교회다. 관점과 목표가 새롭고, 특히 젊은 세대를 지향하는 지향점이 분명하고 뚜렷하다. 청년이 중심이 되는 교회, 청년들을 수용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어머니의 기도와 서원기도

최순환 목사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다. 유력 신문사 기자로 바쁘게 생활하시던 아버지는 집사로 교회를 섬기다가 최 목사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 권사님이셨던 어머니도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늘 기도하셨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몸이 불편하셨던 어머니는 기도가 생활의 주된 활동이셨다. 어머니는 매일 5시간 6시간 기도하셨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셨고, 교회와 집을 오가시며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사셨다. 몸이 불편하셔서 활동의 제약이 많았지만 늘 기도하시며 사셨다.

어머니가 서원기도를 하셨다. 기도 중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물론 최순환 목사는 늘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하지만 어린 최순환은 별로 동의하지 않았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하지만 대학을 진학하며 신학대학을 선택했다.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신학대학의 진학은 청년 최순환에게 큰 축복이었다. 신학대학의 채플을 통해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였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였다.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이다.

소명과 신학 수업의 경험

최순환 목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과와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과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Th.M)을 졸업하였다. 신학 공부를 해 보니 신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싶었다. 신학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에 미국 유학을 결심했다.

2013년 도미하여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D.Min)과정을 마쳤다. 이런 신학 훈련을 통하여 그는 “실천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실제적인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복음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사역 현장에서 복음이 제대로 역사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임을 느꼈다. 특히 다음세대를 향한 새로운 목회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부족함을 느꼈을 때 더욱 실천신학의 필요성을 실감한다.

훈련과 성숙 안겨준 청년 사역

최 목사는 어린 나이에 서울 왕성교회 청년부 디렉터로 일했다. 25세에 약 천 여명에 이르는 청년 사역의 책임자로 일하게 된 것이다. 그가 젊은 나이에 사역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역을 6년간 감당하였다. 돌이켜 보면 보람과 기쁨의 세월이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큰 부흥도 경험했다. 사역 초창기에 900명 남짓했던 청년들이 불과 1~2년 만에 1,500명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도전과 훈련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사역자로서 성숙을 경험하는 축복된 기간이었다.

이후 미국 유학 중 세리토스 선교교회에 청년부 목사로 3년간 사역했다. 미국 유학 중 본래는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으나, 세리토스 선교교회 방상용 목사님을 만나면서 방향전환이 일어났다. 방 목사의 “현재 청년이 없는 이민교회에 청년부를 함께 만들어보자”는 도전과 초대가 그를 이민교회로 인도했다.

이민교회의 사역은 전혀 새로운 사역이었다. 한국에서 감당한 청년 사역이라 큰 고민 없이 사역을 시작했지만 당황스러울 만큼 예상 밖의 상황을 맞이하였다. 지금껏 규모가 갖춰져 있고 바탕이 있는 청년부를 섬겼지만, 청년이 없는 교회에 청년부를 세워나가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다. 도전도 문제도 많았다. 또 많이 배우고 많이 느꼈다. 캠퍼스 전도, 지역 전도, 교회 연합 사역, 청년 찬양 집회, 일대일 양육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회 청년부가 조금씩 세워졌다. 1명도 없던 청년부가 20명 정도 모이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또 불신 청년들이 세례를 받는 일들도 있었다. 사역에 은혜를 주셨다.

1.5세의 가능성을 발견하다

최 목사는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한인 1.5세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들은 언어가 준비되어 있고, 한국적인 문화 양식을 갖고 있고, 미국의 문화에 이미 적응된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의 선교적 가능성을 보았다.

그는 ‘1.5세 청년들을 영적으로 깨운다’는 비전을 갖고, 찬양 전문 사역자 천관웅 목사(뉴제너레이션 워십 대표)와 함께 킹덤 드림콘서트로 미국 전역을 순회하였다. 서부, 동부 동남부 서북부, 중부 등지를 다니며 청년연합 집회를 통해 청년들을 깨웠다. 집회마다 청년들이 모였고, 헌신을 결단하는 청년들이 있었다. 사역의 열매를 주신 것이다.

이런 사역을 통해 최 목사는 양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단발적 집회를 통해 청년을 깨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사역을 통해 청년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양육으로 젊은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야 함을 깨달았다. 젊은이를 위한 교회개척의 필요성을 깨닫고, New Church를 개척하게 된 것이다.

개척교회 목사로 살아가기

예상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개척은 쉽지 않았다. 부교역자로서 경험하지 못한 영적 도전을 경험한다. 개척교회다 보니 자원의 부족을 늘 직면하였다. 그런데 재정보다 더 힘든 것은 예배 처소를 계속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다. 1년 동안 3번이나 장소를 이전했다. 예배 장소를 빌려 사용하는 교회마다 예상치 문제들이 생겨서 계약을 지속할 수가 없었고 예배처소를 옮길 때마다 손실이 있었다. 새로운 예배처소에서 적응하는 것이나 전도지 등을 업데이트 하는 것이 성가신 일이었다.

나아가 정착하지 못하는 방문자들이 교회 사역자들을 지치게 한다. 청년들 사이에 New Church가 알려져서 새 가족들이 거의 매주 방문하지만 정착률은 매우 낮다. 교회의 여건과 상황이 어려워 정착이 쉽지 않은 것이다. 기대했던 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않을 때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했고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다가 내부적 아픔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관계 맺은 비신자들과 끊임없는 네트워킹, 지속적인 일대일 양육, 강력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게끔 해나간다. 실제 교회 안에서 청년들의 레디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예수가 가장 좋다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생겨나며 캠퍼스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매주 전도하는 일이 청년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비전과 기도제목

최 목사의 비전은 전도하고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New Church의 비전이기도하다.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정의는 지나치리만큼 단순하다. 바로 개인들의 전도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개인 전도를 강조하고, 양육의 필요성을 강변한다. 먼 나라 혹은 오지에서 선교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각자가 복음을 전하여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New Church는 불신자 전도를 지향한다. 이런 비전의 실현을 위해 수평 이동이 아닌 전도에 집중한다.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 그런데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전도보다 수평 이동이 쉽다. “이동”은 교회에서 교회로 이동하는 것이지만, 전도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다. New Church는 전도를 위해 비신자들이 모이는 곳을 찾는다. 술집, 노래방, 나이트클럽, 음식점 등. 젊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전도용품인 라이터를 들고 나간다. 일명 라이터 전도다. 그렇다고 흡연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담배를 피우는 청년은 상당수가 불신자다. 그들이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라이터에 교회 이름을 새겨 전도한다. 라이터로 전도하는 것에 관해 비난을 받지만 실제로 라이터를 받고 교회에 오는 청년들이 있다.

그는 현재에 집중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지향한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먼 미래로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서 실천하라고 강조한다. 현재를 잘 살아서 미래의 삶을 가꾸어 가는 것이다. 그는 이 모든 비전을 기도에 담는다.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현장을 기도로 이기려 한다. 옛날 기도로 그의 삶을 지원해 주신 어머니의 기도를 실천하려 한다.

강태광 편집위원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CMM Since 1996

의료비 대책 세우셨습니까?

CMM 기독의료상조회는 의료비 나눔을 통해 의료비 걱정을 해결합니다.

CMM 기독의료상조회는 성경적인 삶을 사는 4만여 성도들이 참여해, 짐을 서로 지라 (갈 6:2)는 성경 말씀에 따라 의료비 나눔과 중보 기도로 서로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선교회 산하에서 1996년에 시작된 CMM 기독의료상조회는 지난 23년 동안 문제없이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며, 소수민족 단체로는 유일하게 미 보건복지부 산하 CMS(Centers for Medicare&Medicaid Services)로부터 승인받은 의료비 나눔 사역 단체입니다.

23년 역사의 CMM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는 건강합니다!

- 저렴한 회비로 다양한 의료비 지원 (질병당 $150,000)
- 미국 내 의사나 병원 제한 없이 지원
-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 골드플러스 회원은 건강검진비 지원 ($500/1년)
- 새 회원 소개 시 회비 크레딧을 주는 Member Referral 제도
- 장례비 보조를 위한 Life Plan (사망시 평균 회비의 100배 지원)
- CA 샌디에고 인근 라모나 기도원/쉼터 이용시 할인 혜택

새 회원을 소개하면 회비 Credit을 드립니다.

Life Plan
회원 사망시 장례비* 지원
*평균 회비의 100배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인	$175	$135	$80	$40
2인	$325	$260	$160	$80
3인 이상	$425	$385	$240	$120
본인부담금(1인당)	$500/Year	$500/Incident	$1,000/Incident	$5,000/Incident
지원금/질병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기독의료상조회는 의료 보험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입니다.
비싼 보험료, 높은 디덕터블로 꼭 필요할 때 도움 받기 힘든 일반 의료보험과 비교해 보세요.

CMM 기독의료상조회,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저렴한 회비
월40불부터 가입 가능
(자녀 1명만 내면 나머지 자녀 무료)

낮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이상 의료비 할인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다양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응급실, 처방약, 임신 및 출산, 입원/수술비 등

골드플러스 건강 검진비 지원
매년 $500 건강 검진비

의료비 지원금
질병당 $150,000

Burden Sharing
15만불 이상 의료비는 전 회원이 함께 나눠 100만불까지 지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cmmlogos.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MM Since 1996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Owned by Logos Missions, Inc.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대표전화 773-777-8889 FAX 773-777-0695

CMM 캘리포니아 가입문의:
직통: 714-333-7487 Email: sungaeshin
캘리포니아 사무실 :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인터넷가입 www.cmmlogos.org

CMS 승인 기관